

石膏의 清熱瀉火 의미 분석 : 《傷寒論》과 《溫病條辨》을 중심으로

추홍민¹, 신윤섭¹, 박찬중¹, 이금산¹, 황의형², 김정훈^{3*}

1.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2.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3.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Literature Review on the Heat-clearing and Fire-purging Effect of Gypsum Fibrosum

Chu Hongmin¹, Sin Yoonseob¹, Park Chanjong¹, Lee Guemsan¹, Hwang Euihyoung²,
Kim Junghoon^{3*}

1. Dept. of Herbol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2. Dep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3.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e eastern traditional medicine, Gypsum Fibrosum (石膏) has been used in a fever by its characteristic effect of heat-clearing and fire-purging (清熱瀉火).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eat-clearing and fire-purging effect of Gypsum through investigating literatures. The descriptions of medicinal effect of Gypsum Fibrosum were collected from 16 kinds of medical books as well as Treatise on Febrile Diseases (傷寒論) and Detailed Analysis of Epidemic Warm Diseases (溫病條辨).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Gypsum Fibrosum was used to treat fever-related symptoms initially in th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owever, the concept of fever was further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ever (熱) and fire (火), which make the concept of fire-purging (瀉火) separated from heat-clearing (清熱). Therefore, the meaning of 'heat-clearing' effect should cover diseases caused by pathologic heat and that of 'fire-purging' effect should cover severe diseases or mental disorders.

Keywords: Gypsum Fibrosum

* Correspondence: 김정훈(Kim Junghoon. Tel: +82-51-510-8456 Fax: +82-51-510-8420 E-mail: kmsct@pusan.ac.kr)

· Received 2014-09-23, accepted 2014-09-28.

서론

石膏(Gypsum Fibrosum)는 황산염류에 속한 광물로 주로 황산칼슘 수화물($\text{CaSO}_4 \cdot 2\text{H}_2\text{O}$)를 함유하고 있다¹⁾. 石膏는 淸熱藥 중 淸熱瀉火藥으로 분류되며, 解肌淸熱 및 除煩止渴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주로 熱病壯熱不退, 心煩神昏, 譫語發狂, 口渴咽乾, 肺熱喘急, 中暑自汗, 胃火頭痛, 牙痛 등을 치료한다²⁾. 石膏가 속한 淸熱藥들은 《內經》의 ‘熱者寒之’의 치료 원칙을 근거로 하여 응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른바 淸熱 작용을 하는 약물들은 모두 寒涼의 성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熱病, 瘟疫, 熱痢, 癰腫瘡瘍 및 目赤腫痛, 咽喉腫痛 등의 각종 裏熱證에 응용할 수 있다¹⁾.

기존의 연구는 石膏가 주약인 처방에 대한 동물실험 혹은 증례보고가 있었고, 石膏의 효능 대한 문헌적인 연구로 3편의 논문이 보고되었는데, 이 중 2건의 연구는 사상의학에 중점을 둔 문헌적 고찰이었다^{3,4)}. 이는 石膏는 四象醫學에서 少陽人의 약물로 다용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1건은 동의보감 중 石膏가 사용된 방제에 대한 분석이었다⁵⁾. 위 연구들에서는 石膏가 사용된 처방을 분석하였으나, 石膏의 효능인 淸熱瀉火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石膏는 淸熱藥 중 淸熱瀉火藥에 속하는 대표적인 약물로서 예로부터 널리 쓰였다. 그러나 역대 의서들에서 石膏의 효능과 주치에 대해 서술한 바가 서로 다르고, 그 용어 또한 과거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淸熱’과 ‘瀉火’의 정확한 개념은 규정되지 않고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대 의서들에 서술된 石膏의 효능과 주치를 수집하고 분류한 뒤, 시대에 따른 변천을 정리하고, 그 후에 外感病을 다룬 대표적인 두 저작인 《傷寒論》과 《溫病條辨》에서 石膏가 쓰인 처방들을 분석하여 ‘淸熱’과 ‘瀉火’ 및 ‘淸熱瀉火’ 의미를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본론

1. 재료 및 방법

石膏에 대해 기술한 다음의 의서 16권을 바탕으로 조사했으며 연대는 漢 시대부터 明·淸 시대까지 다양한 의서를 기반으로 石膏의 淸熱瀉火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 漢

《神農本草經》, 《傷寒論》

2) 隨, 唐, 宋

《名醫別錄》, 《藥性論》, 《日華子本草》, 《開寶本草》, 《本草衍義》

3) 金, 元

《藥類法象》

4) 明, 淸

《本草蒙筌》, 《藥性解》, 《景岳全書》, 《本草備要》, 《本經逢原》, 《本草求真》, 《溫病條辨》, 《醫學衷中參西錄》

2. 결과

1) 고문헌 분석

16권의 의서에서 石膏의 효능과 주치를 바탕으로 淸熱瀉火의 의미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표 1). 각本草書의 작성 시기 및 연도는 임상본초학¹⁾을 참고하였다.

표 1. 시대별 의서에 기재된 石膏의 효능주치

本草書	시대	연도	효능주치
神農本草經	漢代	-	主治中風寒熱, 心下逆氣, 驚喘, 口乾舌焦不能息, 腹中堅痛, 除邪鬼, 產乳, 金創
名醫別錄	梁(武帝)	502-536	主除時氣, 頭痛, 身熱, 三焦大熱, 皮膚熱, 腸胃中腐熱, 解肌, 發汗, 止消渴, 煩逆, 腹脹, 暴氣喘息, 咽熱, 亦可作浴湯
藥性論	唐(太宗)	627-649	能治傷寒頭痛如裂, 壯熱皮如火燥, 煩渴, 解肌, 出毒汗. 主通胃中結煩悶, 心下急煩燥, 治唇口乾焦. 和蔥煎茶, 去頭痛
日華子本草	宋(開寶)	968-975	治天行熱狂, 下乳, 頭風旋, 心煩燥, 措齒齧齒
開寶本草	宋(開寶)	973-974	除時氣, 頭痛, 身熱, 三焦大熱, 皮膚熱, 腸胃中膈熱, 解肌發汗, 止消渴, 煩逆, 腹脹, 暴氣喘息, 咽熱, 亦可作浴湯
本草衍義	宋(政和)	1116	若傷寒熱病, 或大汗後, 脈洪大, 口舌燥, 頭痛, 大渴不已, 或者暑熱, 身痛倦怠, 白虎湯服之無不效
藥類法象	-	-	<p>治足陽經中熱, 發熱, 惡熱, 躁熱, 日晡潮熱, 自汗, 小便濁赤, 大渴引飲, 體肌肉壯熱, 苦頭痛之藥, 白虎湯是也. 善治本經頭痛. 若無已上證, 勿服. 多有脾胃虛勞, 形體病證初得之時, 與此有餘證同. 醫者不識而誤與之, 不可勝救也</p> <p>《象》云 治足陽明經中熱, 發熱, 惡熱, 燥熱, 日晡潮熱, 自汗, 小便溼赤, 大渴引飲, 肌肉壯熱, 苦頭痛之藥, 白虎湯是也. 善治本經頭痛, 若無餘證, 勿用</p> <p>《心》云 胃經大寒藥, 潤肺除熱, 發散陰邪, 緩脾益氣</p> <p>《珍》云 止陽明經頭痛. 胃弱不可服. 下牙痛, 須用香白芷</p> <p>《本草》云 主中風寒熱, 心下逆氣, 驚喘, 口乾舌焦, 不能息, 腹中堅痛, 除邪鬼, 產乳金瘡. 除時氣頭痛, 身熱, 三焦大熱, 皮膚熱, 腸胃中膈氣, 解肌發汗, 止消渴煩逆, 腹脹, 暴氣喘息, 咽熱, 亦可作浴湯</p> <p>[東垣] 治三焦皮膚大熱, 手少陽也. 仲景治傷寒陽明證, 身熱, 目痛鼻乾, 不得臥, 身以前, 胃之經也. 胸, 胃肺之室. 邪在陽明, 肺受火制, 故用辛寒以清肺, 所以號為白虎湯也. 雞子為之使</p> <p>[潔古] 治足陽明經中熱, 發熱, 惡熱燥, 日晡潮熱, 自汗, 小便濁, 大渴引飲, 身體肌肉壯熱, 苦頭痛之藥, 白虎湯是也. 善治本經頭痛. 若無以上證, 勿服. 多有脾胃虛勞形體病證, 初得之時, 與此有餘之證同者, 若醫者不識而誤用之, 則不可勝救矣</p>
本草蒙筌	明	1565	入肺胃三焦. 辛能出汗, 解肌上行而理頭痛; 甘則緩脾, 益氣生津以上渴消. 故風邪傷陽, 寒邪傷陰, 總解肌表可愈
藥性解	明	1588-1655	主出汗解肌, 緩脾益氣, 生津止渴, 清胃消痰, 最理頭痛. 須瑩淨如水晶者真. 雞子為使, 巴豆, 畏鐵
景岳全書	明	1624	用其寒散清肅, 善祛肺胃三焦之火, 而尤為陽明經之要藥. 辛能出汗解肌, 最逐暑熱證而除頭痛; 甘能緩脾清氣, 極能生津止渴而卻熱煩. 邪火盛者不食, 胃火盛者多食, 皆其所長. 陽明實熱牙疼, 太陰火盛痰喘, 及陽狂熱結熱毒, 發斑發黃, 火載血上, 大吐大嘔, 大便熱秘等證, 皆當速用
本草備要	清	1694	體重瀉火, 氣輕解肌
本經逢原	清	1695	清胃熱燉用, 治中喝熱生用
本草求真	清	1769	淸熱解肌, 發汗消鬱. 緣傷寒邪入陽明胃府, 內鬱不解, 則必日晡熱蒸, 口乾舌焦唇燥, 堅痛不解, 神昏譫語, 氣逆驚喘, 溺閉渴飲, 暨中暑自汗, 胃熱發斑, 牙痛等症, 皆當用此調治
醫學衷中參西錄	-	1918-1934	有透氣解肌之力, 為清陽明胃腑實熱之聖藥, 無論內傷、外感用之皆效

2) 《傷寒論》에 수재된 石膏를 사용한 처방

《傷寒論》에서 石膏는 총 6개 처방에 걸쳐 사용되었다. 太陽病에는 大靑龍湯, 桂枝二越婢一湯, 麻黃杏仁甘草石膏湯 3개 처방에 사용되었고, 陽明病에도 白虎湯, 白虎加人蔘湯, 竹葉石膏湯 3개 처방에 사용되었다. 石膏는 太陽病과 陽明病에 고루 사용되었다. 사용된 처방의 주치는 發熱, 脈滑數, 口渴, 心煩, 大汗出 등이다(표 2). 이러한 주치는 현대문헌에 수록된 石膏 주치와 유사하다.

표 2. 傷寒論에 수재된 석고가 사용된 처방

구분	處方	處方構成	主治	炮製
太陽病	大靑龍湯	麻黃六兩 桂枝二兩 炙甘草二兩 杏仁四十枚 生薑三兩 大棗十枚 石膏如鷄子大	發熱惡寒 身痛 不汗出而煩躁 舌苔白 或兼黃 脈浮緊	碎綿裏
	桂枝二越婢一湯	桂枝 芍藥 麻黃 炙甘草 各十八銖 大棗四枚 生薑一兩二銖 石膏二十四銖	發熱惡寒 熱多寒少 頭痛 汗出不徹 面赤 口渴心煩	碎綿裏
	麻黃杏仁甘草石膏湯	麻黃四兩 杏仁五十個 炙甘草二兩 生石膏半斤	氣喘咳嗽 發熱 汗出 口渴 苔薄而乾 或薄黃 脈浮數或滑數	-
陽明病	白虎湯	石膏一斤 知母六兩 炙甘草二兩 粳米六合	身大熱 不惡寒 反惡熱 大汗出 大渴引飲 心煩 甚或神昏譫語遺尿 或四肢厥冷 舌苔黃燥 脈洪大或滑數	碎
	白虎加人蔘湯	石膏一斤 知母六兩 炙甘草二兩 粳米六合 人蔘三兩	身大熱 不惡寒 反惡熱 大汗出 大渴引飲 心煩 甚或神昏譫語遺尿 或四肢厥冷 舌苔黃燥 脈洪大或滑數 大煩渴不解 口乾舌燥 背微惡寒	碎綿裏
	竹葉石膏湯	竹葉二把 石膏一斤 半夏半升 人蔘二兩 炙甘草二兩 粳米半升 麥門冬一升	發熱汗多 心煩少氣 氣逆欲吐 口乾喜飲 或喉乾嗆咳 舌紅少苔 脈虛數	碎綿裏

3) 《溫病條辨》에 수재된 石膏를 사용한 처방

《溫病條辨》에서 石膏는 총 14개 처방에 21회에 걸쳐 사용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白虎湯(5회), 白虎加人蔘湯(4회), 加減木防己湯(1회), 減味竹葉石膏湯(1회), 麻杏甘石湯(1회), 白虎加桂枝湯(1회), 宣白承氣湯(1회), 玉女煎去牛膝熟地加元參細生地(1회), 銀翹散去牛蒡子元參芥穗加杏仁石膏黃芩(1회), 竹葉玉女煎(1회), 清燥救肺湯方(1회), 三石湯方(1회), 化斑湯(1회), 杏仁石膏湯(1회)이다. 上焦篇에는 7개 처방이 11회 사용되었고, 中焦篇에는 7개 처방이 8회 사용되었고, 下焦篇에는 2개 처방이 2회 사용되었다. 石膏는 주로 上焦와 中焦에 사용되었다. 사용되는 주요증상은 渴症, 脈洪大, 惡熱, 煩渴, 神昏譫語, 發斑, 肺熱咳嗽 등의 나타났다(표 3). 이러한 주치는 앞서의 현대문헌의 분석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 溫病條辨에 수재된 석고가 사용된 처방

구분	處方	處方構成	主治(條文)	炮製	
上焦	風溫 溫熱 溫疫 溫毒 冬溫	白虎湯	生石膏一兩 研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太陰溫病, 脈浮洪, 舌黃, 渴甚, 大汗, 面赤, 惡熱者, 辛涼重劑白虎湯主之	生石膏
		白虎加人參湯	生石膏一兩 研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人參三錢	太陰溫病, 脈浮大而芤, 汗大出, 微喘, 甚至鼻孔扇者, 白虎加人參湯主之 (8)	生石膏
		玉女煎去牛膝熟地加元參細生地	生石膏一兩 知母四錢 元參四錢 細生地六錢 麥冬六錢	太陰溫病, 氣血兩燔者, 玉女煎去牛膝熟地加元參主之 (11)	生石膏
		化斑湯	石膏一兩 知母四錢 生甘草三錢 元參三錢 犀角二錢 白粳米一合	太陰溫病, 不可發汗. 發汗而汗不出者, 必發癩疹; 汗出過多者, 必神昏譫語. 發斑者, 化斑湯主之 (16)	
	暑溫	白虎湯	生石膏一兩 研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形似傷寒, 但右脈洪大而數, 左脈反小於右, 口渴甚, 面赤, 汗大出者, 名曰暑溫, 在手太陰, 白虎湯主之; 脈孔甚者, 白虎加人參湯主之 (22)	生石膏
		白虎加人參湯	生石膏一兩 研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人參三錢		生石膏
	伏暑	銀翹散去牛蒡子元參芥穗加杏仁石膏黃芩	銀翹散內去牛蒡子·元參·芥穗, 加杏仁六錢, 生石膏一兩, 黃芩五錢	太陰伏暑, 舌白口渴, 有汗, 或大汗不止者, 銀翹散去牛蒡子·元參·芥穗, 加杏仁·石膏·黃芩主之; 脈洪大, 渴甚, 汗多者, 仍用白虎法; 脈虛大而芤者, 仍用人參白虎法 (40)	生石膏
		白虎湯	生石膏一兩 研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生石膏
		白虎加人參湯	生石膏一兩 研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人參三錢		生石膏
	溫瘧	白虎加桂枝湯	知母六錢 生石膏一兩六錢 粳米一合 桂枝木三錢 炙甘草二錢	骨節疼煩, 時嘔, 其脈如平, 但熱不寒, 名曰溫瘧, 白虎加桂枝湯主之 (50)	生石膏
	秋燥	清燥救肺湯方	石膏二錢五分 甘草一錢 霜桑葉三錢 人參七分 杏仁七分, 胡麻仁一錢, 阿膠八分 麥冬二錢, 枇杷葉六分	諸氣膈鬱, 諸痿喘嘔之人於燥者, 喻氏清燥救肺湯主之 (58)	-
	中焦	風溫 溫熱 溫疫 溫毒 冬溫	白虎湯	生石膏一兩 研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面目俱赤, 語聲重濁, 呼吸俱粗, 大便閉, 小便濇, 舌苔老黃, 甚則黑有芒刺, 但惡熱, 不惡寒, 日晡益甚者, 傳至中焦, 陽明溫病也. 脈浮洪躁甚者, 白虎湯主之 (1)
減味竹葉石膏湯			竹葉五錢 石膏八錢 麥冬六錢 甘草三錢	陽明溫病, 脈浮而促者, 減味竹葉石膏湯主之 (2)	-
白虎湯		生石膏一兩 研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下後無汗, 脈浮者, 銀翹湯主之; 脈浮洪者, 白虎湯主之; 脈洪而芤者, 白虎加人參湯主之 (13)	生石膏	
白虎加人參湯		生石膏一兩 研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人參三錢		生石膏	
宣白承氣湯		生石膏五錢 生大黃三錢 杏仁粉		陽明溫病, 下之不通, 其證有五: 喘	生石膏

구분	處方	處方構成	主治(條文)	炮製
		二錢 括藜皮一錢五分	促不寧 , 痰涎壅滯, 右寸實大, 肺氣不降者 , 宣白承氣湯主之 (17)	
暑溫 伏暑	三石湯方	飛滑石三錢 生石膏五錢 寒水石三錢 杏仁三錢 竹茹二錢, 炒 銀花三錢, 花露更妙 金汁一酒杯, 沖 白通草三錢	暑溫蔓延三焦, 舌滑微黃, 邪在氣分者, 三石湯主之 (41)	生石膏
濕溫	加減木防己湯	防己六錢 桂枝三錢 石膏六錢 杏仁四錢 滑石四錢 白通草二錢 薏仁三錢	暑濕痺者, 加減木防己湯主之 面赤 ·口涎自出者 《靈樞》謂: 胃熱則廉泉開, 重加石膏·知母 (68)	-
	杏仁石膏湯	杏仁五錢 石膏八錢 半夏五錢 山樞三錢 黃柏三錢 枳實汁每次三茶匙, 沖 姜汁每次三茶匙	黃疸脉沈, 中痞惡心, 便結溺赤, 病屬三焦裡證, 杏仁石膏湯主之 (72)	-
下焦	風溫 溫熱 溫疫 溫毒 冬溫	竹葉玉女煎	生石膏六錢 乾地黃四錢 麥冬四錢 知母二錢 牛膝二錢 竹葉三錢	生石膏
	寒濕	麻杏石甘湯	麻黃三錢, 去節 杏仁三錢, 去皮尖, 碾細 石膏三錢, 碾 甘草二錢	-

3. 고찰

1) 清熱瀉火의 의미 파악

(1) 清熱의 의미 형성

石膏는 漢代와 宋代까지 대체로 熱에 의한 증상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石膏에 대해 서술된 초기 本草書들을 살펴보면, 그 주치증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점점 熱에 의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石膏를 응용하였다.

《神農本草經》에서는 石膏의 主治로 쓰여있는 口乾舌焦不能息이 조사된 자료에서 처음 등장하는 熱에 대한 증상이다. 하지만 《神農本草經》에 서술되어 있는 石膏의 主治 증상에는 中風寒熱, 心下逆氣, 驚喘 등 그 원인이 熱이라고는 보기 힘든 증상들이 쓰여있다. 이는 石膏의 清熱瀉火에 대한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名醫別錄》에 이르러서야 中風寒熱 등으로 熱로 인한 증상이 구체화 된다. 《名醫別錄》에서는 中風寒熱, 心下逆氣, 驚喘 같은 원인이 모호한 증상들이 빠지고, 頭痛, 身熱, 三焦大熱, 皮膚熱, 咽熱 등 실제로 熱證을 반영하는 증상들이 石膏의 주치로 등장하였다.

《神農本草經》의 腹中堅痛 같은 증상은 이후 《名醫別錄》, 《本草衍義》에서 腸胃中膈熱처럼 熱을 원인으로 하는 증상으로 바뀌게 된다. 《本草衍義》에서는 口舌燥, 大渴不已 등의 증상이 石膏의 주치증에 새롭게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傷寒熱病, 暑熱 등 熱病 치료에 石膏가 응용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熱證·熱病의 치료를 위해 '清熱'이라는 치료법이 사용되었고, 隋唐 시대에 되어서야 石膏의 효능으로서 '清熱'의 개념이 명확해졌다고 사료된다.

(2) 瀉火의 의미 형성

후대로 갈수록 石膏로 치료할 수 있는 열의 원인을 胃熱 등으로 세분화하기 시작한다. '瀉火'라는 말은 청대 《本草備要》에 '體重瀉火, 氣輕解肌'라는 말에서 처음 등장한다. 石膏의 '清熱'이라는 효능과 관련된 부분 중, 煩渴, 身熱등의 원인을 '胃熱'로 본 것을 《藥類法象》의 東垣의 서술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熱證이 심해지면 '胃火盛'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胃火가 심해지게 되면, 神昏譫語, 發斑發疹 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때문에 '清熱'보다 심한 증상의 치료법을 '瀉火'라고 보았거나, 熱이 火가 되어서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瀉火'라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清熱의 의미는 病邪가 熱로 化할 때 津液이 焦乾되는 경우에 사용했다. 이들은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후 병이 진전되어 火의 상태가 되면 그 치료법을 瀉火法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清代 이전까지는 熱이 전변되어 火가 된 것이 神昏譫語 같은 정신적인 증상의 원인이 됨을 알지 못했다가 후대에 분류하기 시작하며 清熱에서 瀉火가 세부적인 개념으로 분류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傷寒 치료에서 清熱法, 瀉火法

《傷寒論》의 처방 중 石膏가 쓰인 것들의 主治를 정리하면 위 표와 같다. 이 중 石膏의 효능 중 하나인 清熱과 관련된 主治만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大青龍湯에 發熱, 煩燥, 舌苔白或兼黃이 있다. 桂枝二越婢一湯에 發熱, 汗出不徹 面赤, 口渴心煩이 있다. 麻黃杏仁甘草石膏湯에 發熱, 汗出, 口渴, 苔薄而乾或薄黃 脈浮數或滑數이 있다. 白虎湯에는 身大熱, 反惡熱, 大汗出, 大渴引飲, 心煩, 舌苔黃燥, 脈洪大或滑數이 있다. 白虎加人參湯에는 白虎湯에 더해 大煩渴不解, 口乾舌燥이 있다. 竹葉石膏湯에는 發熱汗多, 心煩少氣, 口乾喜飲, 舌紅少苔, 脈虛數이 있다.

또한, 위 표의 내용 중 石膏의 또 다른 효능인 瀉火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麻黃杏仁甘草石膏湯의 氣喘咳嗽, 白虎湯의 神昏譫語, 그리고 竹葉石膏湯의 氣逆欲吐가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石膏는 《傷寒論》의 저작시기인 後漢 말부터 發熱, 汗出, 口渴, 心煩, 舌苔黃, 脈數 등의 熱證에 清熱의 목적으로 쓰였으며, 火로 인한 증상인 咳嗽, 氣逆, 神昏譫語 등에도 瀉火의 목적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3) 溫病 치료에서 清熱法, 瀉火法

《溫病條辨》의 처방 중 石膏가 쓰인 것들의 主治를 정리한 표 3에서 石膏의 효능 중 하나인 清熱과 관련된 主治만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白虎湯에는 口渴甚, 面赤, 大汗出, 惡熱, 脈洪大, 舌苔黃이 있고 白虎加人參湯에는 白虎湯에 더해 脈洪而芤이 있다. 化斑湯에는 汗出過多이 있고, 銀翹散去牛蒡子元參芥穗加杏仁石膏黃芩에는 口渴, 大汗不止이 있고, 白虎加桂枝湯에는 但熱不寒이 있고, 減味竹葉石膏湯에는 脈浮而促이 있고, 加減木防己湯에는 面赤이 있고, 竹葉玉女煎에는 乾嘔煩渴이 있다.

또한 위 표의 내용 중 石膏의 또 다른 효능인 瀉火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化斑湯에 神昏譫語, 發斑疹이 있고, 宣白承氣湯에는 喘促不寧, 肺氣不降이 있고, 麻杏甘石湯에는 喘咳息促이 있다.

종합하면 《溫病條辨》에서 石膏는 口渴, 面赤, 汗出, 惡熱, 脈洪大, 舌苔黃 등의 熱證에 清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傷寒論》에서의 石膏의 활용과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火로 인한 증상인 咳嗽, 氣逆, 神昏譫語, 發斑疹 등에 瀉火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傷寒論》보다는 더욱 많은 처방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溫病條辨》이 저술된 清代에 이르러 瀉火가 개념의 확장을 통해 清熱과 좀 더 명확히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1. 石膏는 漢代에서 宋代까지 대체로 熱에 의한 증상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었고, 이때의 熱에 대한 증상은 頭痛, 身熱, 三焦大熱, 皮膚熱 등이 있다. 후대로 갈수록 熱에 의한 증상이 세분화 되면서 壯熱, 神昏譫語, 發斑 등과 같은 重症에 대해서는 熱과 火를 구분하여 그 원인을 火로 보았다. 따라서 그 처방에 있어서도 熱을 치료하는 清熱法과는 별도로 火를 내리는 瀉火法이 등장하게 되었다.
2. 처방에 있어서도 漢代 《傷寒論》에서는 陽明病에서 發熱, 脈滑數, 口渴, 心煩, 大汗出 등을 해소하는 주로 清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清代 《溫病條辨》에서는 熱에 의한 증상을 해소하는 清熱의 개념과 火에 의해 발생하는 神昏譫語, 發斑 등을 해소하는 瀉火의 개념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즉 최초에는 清熱의 개념만 존재하였으나, 증상을 세분화하고 처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清熱 중 일부 重症의 증상에 대해 瀉火의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이러한 관점에서 《本草學》, 《중화인민공화국약전》 등 현대 문헌에 수록된 石膏의 효능주치인 ‘清熱瀉火’는 熱로 인한 증상을 해소하는 ‘清熱’과 중증 혹은 정신적 문제인 ‘瀉火’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4년 한국한의학연구원 위탁과제 「내부형태 기반 약제 품질 정보 확보」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辛民教, 精華臨床本草學. 서울:영림사, 2010:374-6.
2. 朱榮丞, 增補 耘谷本草學. 전주:도서출판 우석, 2013:416-9.
3. 윤홍식, 김경요. 石膏에 關한 文獻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7;9(1):353-61.
4. 정광희,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에서의 石膏의 藥理에 대한 文獻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353-61.
5. 오황, 이장천. 東醫寶鑑 중 石膏가 主藥으로 配伍된 方劑의 活用に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7;15(1):1-19.